

지식시대의 역설

지난해 필자는 요즘 잘 나가는 인터넷 벤처 기업이 몇명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몇시간씩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필자에게 큰 행운이었다. 여기저기서 그들을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꾼으로 매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심지어 반(反) 벤처 분위기까지 생겨나고 있는 이 때에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만난 인터넷 벤처 기업가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름대로 잘 읽고 있었으며, 의욕과 패기에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매우 학구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기업가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새로운 경영 엘리트 집단이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놀랍도록 왕성했다. 한 마디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업가들이었다. 필자는 그들이 이 시대에 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다가오는 지식시대의 일과 생활방식을 탐지한 신문명의 개척자들이라고 믿는다.

정보기술이란 정보를 생산, 처리, 그

리고 전달하는 기술이다. 때문에 정보 기술의 발달은 정보기술 자체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분야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쌍방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의 생산에 대중적 참여를 촉진하게 된다. 인터넷상에 개인 홈페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이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정보기술은 인간에 의해서든 기계에 의해서든 일단 정보시스템에 투입된 자료로부터 의미(정보나 지식)의 생산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최근 경영관리에 사용되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이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기술의 확산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아마도 그 점이 정보기술과 다른 테크놀로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기도 할 것이다.

지식양 늘면 불확실성은 가중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 사회가 보유한 지식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겠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가 보유한 지식의 양과 개인의 지적인 소화능력 사

이의 간격이 커지면, 각 분야의 전문가는 증가하겠지만 사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의 양은 증가되지만 개인이 느끼는 불확실성 혹은 불안감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전망이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만 가지고서는 정확히 제시될 수 없다. 더구나 안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지적처럼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은 자연환경이나 역사과정에 점점 더 많이 개입해 왔다.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간 개입의 확대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커녕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컨대 핵발전소나 유전자 변형 식품이 전력과 식량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신에 우리의 안전은 훨씬 불투명하게 된다.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위험성이 출현한 것이다. 이제 자연적 재앙뿐 아니라 '제조된 위험(manufactured risk)'까지를 감수해야 한다. 계몽시대 이래 인류는 무지(無知)로부터의 해방이 보다 확실성이 높은 삶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보기술의

지식생산이 급속히 증가하면 지식의 수명이 고도로 짧아진다.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이 일상화되어
수시로 배우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모험과 탐구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과
고통스러운 학습이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



尹英民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발달로 인한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흥미있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의 무용론에 기울기보다 정보와 지식을 더욱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역설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사실적 정보에 대한 욕구 못지 않게 해석적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 짐을 함축한다. 사실적 정보는 넘쳐 나는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전문 분야가 된다-이 사실적 정보를 해석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출생이나 육아,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범죄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점점 전문가들의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설령 전문가들이 증가해도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지식생산이 급속히 증가하면 지식의 수명이 고도로 짧아진다.

새로운 지식은 현재의 지식과 사이 좋게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대체한다. 조셉 슈페터

(Joseph Schumpeter)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향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특별히 심각하지만, 다른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은 대부분 수명이 매우 짧게 된다.

평생교육없인 견디기 어려워

예컨대 필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해마다 적어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의 강의 내용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는 지난 몇년 동안 386에서 펜티엄III까지 거의 해마다 변했고, 컴퓨터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도 객체지향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 분야에는 ATM, 기가급 이더넷, 프레임 릴레이, ADSL 등 새로운 기술이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과목에서는 정보기술의 응용보다 원리를 가르치는데도 이러한 기술 변화를 따라잡는데 정신이 없으니, 경영정보학과 같이 응용 쪽을 가르치는 과목이야 오죽하겠는가?

지식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면 평

생교육 혹은 사회교육이 일상화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사회에 나가면 평생동안 다시 공부를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수시로 학교에 돌아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요즘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 번창하고 있으며, 특수한 응용기술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에는 3~40대 연령층의 지원도 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지원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식사회는 학습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벤처 기업가들의 행동양식은 지식사회의 예외가 아니라 전형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모험과 탐구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과 고통스러운 학습이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

과연 새 천년에도 과학기술은 운명적으로 두 얼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일까? ㉮